

다산포럼

양질의 시간제 노동, 네덜란드의 교훈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세계경제가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다.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들은 돈을 풀거나 조여도 효과가 크지 않고, 신흥국 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과속성장에 따른 거품으로 흔들리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혼란이다.

고용증대를 통해 성장을 복지로 연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로선 엄청난 부담이다. 내수가 가라앉고, 수출이 줄어들면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서 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동안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집권기간 안에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은 양질의 시간

제 일자리다.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4대 보험 혜택 등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다. 일종의 정규직 시간제다. 올해 연간 평균 2092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시간제 일자리를 93만 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면 떠오르는 나라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이래 10년마다 세 차례에 걸친 노사협약을 통해 노조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은 고용보장을 지키면서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이루었다.

그 핵심은 주당 36시간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노조가 노동 시간 유연화를 수용하면서 기업은 시간제 고용의 확대를 통해 해고를 줄이는데 합의해 왔다. 정부도 시간제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네덜란드의 성공은 타협의 정치문화에 바탕한 합의제 민주주의에 있다. 승자 독식이 없는 것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도 투표율에 따라 내각 진출의 기회를 갖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 개의 중앙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를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수시로 탈퇴가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중앙노조는 합의를 거부해도 그만이다. 노사 간에 신뢰가 없다.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주는데 정규직 시간제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 비정규직의 일부만 구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매우 많다. 2010년 현재 정부 통계로 24.8%이나 노동계 추산으로 50%를 넘는다. OECD 평균이 12.0%이나 정부 통계상으로도 두 배 이상이다.

유럽에서 네덜란드는 가장 관대하고, 광범한 복지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복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 전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자에 대한 복지제공을 줄이고, 연금과 보험에서 민영화를 도입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계획을 하였다.

네덜란드는 남성 중심의 복지제도로 인한 여성 취업률의 축소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 단위의 사회보험 기여 단위를 개인으로 바꿈으로써 여성의 복지 수급권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였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배경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을 통한 성장이 가능했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임금인상의 억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노동생산성의 정체로 이어졌다. 실업률의 감소도 남성 노동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제 여성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노동력 재분배 현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실업의 위기를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 노동력의 확대로 해결하면서 여성 노동력의 파트타임화 전진되고, 기존 실업자의 구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그 결과다. 기업이 더 낮은 임금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가운데 고용증대에 대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노조 없는 곳에서 노사타협이 형식적이며, 노사협약 없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걸릴 수 있다. 노동을 깨안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꾸준한 학습과 조정만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지나고 있어 이를 지방은행의 매각이 일정보다 표류될 가능성도 커졌다.

광주은행이 탄생에 인수된다면 당장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광주은행 환원을 위한 지역민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대우증권, 삼성증권, JT 모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합병 주식 총수의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광주은행의 인수가는 1조1000억~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JB금융(전북은행)이 광주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에서는 법률적 제약을 피하고자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추진이 여의치 않고, 지역자본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하게 될 확률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정치인들까지는 광주은행 매각을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게 곧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편이자 광주은행을 우량은행으로 성장시킨 지역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정부에 적극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말 그대로 광주가 주인이 꿰어야 하는 것이다.

때 이른 적조 확산, 피해예방 만전 기해야

'여를 바다의 불청객' 적조가 남해안에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아직 양식업 등에 직접 피해를 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남해에서 50억 대의 피해를 불러왔던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고흥 내나로도 동부 해역에서 올해 처음 적조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여수 일부 해역에서 길이 500m, 폭 20~30m 규모의 적조띠가 발생해 어민들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에서만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적조띠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를로디나우균이 모인 것으로,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적조는 직접적으로는 양식어류의 집단폐사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낳게 된다.

어촌은 양식장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유해성 적조는 예년에 비해 50여 일 앞당겨 관측돼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올해는 무더위가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조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장 및 농·축산 폐수, 생활하수의 정화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해양의 부영양화를 차단해야 한다.

어직은 양식장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유해성 적조는 예년에 비해 50여 일 앞당겨 관측돼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올해는 무더위가

無等鼓

폐사(廢寺)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던 사내 3명이 얼마 전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얘기를 주고 받는다. 한 사무라이가 부인을 말에 태워 산길을 지나다 도적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하지만 용의자인 도적과 목격자 나루꾼, 부인 망자(亡者) 등 4명은 관청 재판에서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엇갈리게 진술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조차 솔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 연출한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1910~1998)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상의 기이한 양상들을 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쇼몽'은 정작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이태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호평을 받게 된다. 1943년 '스카터 산시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구로사와 감독은 57년동안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라쇼몽'을 비롯해 7

1950년 영화 '라쇼몽'(羅生門)을